

정부 국가대표 AI 투트랙 전환… 새 사업에 기업들 ‘혼선’

독파모 유지에 프론티어 AI 병행 사업의 지원·평가 기준 등 불확실 업계 “전략 조정여부 판단 어려워”

최상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는 최근 최상급 AI와 산업 특화 모델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편됐다. 글로벌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존 독파모 사업만으로는 최상위권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독파모 사업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의 목표와 역할을 두 축으로 나누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존 사업보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프론티어 AI 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하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이 최상급 AI와 산업 특화 모델 두 전략으로 재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산업 확산,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독파모 사업 중단설이 확산하자 이를 거듭 해명해왔다. 지난달 28일 독파모 3차 평가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최상급 AI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거론된 게 논란이 된 배경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독파모사업 중단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두고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최상급 AI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에도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독파모는 계속된다”고 밝히면서도 최상

위급 AI 개발을 병행해 이를 국가전력자산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이같은 대처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독파모 참여 기업도 향후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독파모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과 두 사업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오는 11월 3차 평가를 앞두고 새롭게 추진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고려하는 등 개발 전략을 조정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정책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에 따라 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뒷받침해야 기업이 AI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책적 발인과 지침이

계속 바뀌면 개발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독파모와 같은 사업으로 알려진 스타트업들은 외부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기업에는 투자금으로 얼마나 오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뜻하는 런웨이라는 개념이 있는 만큼 자본력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내년 2월 중순까지 독파모 최종 2팀을 가릴 예정이다. 프론티어 AI 개발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성능 확보에 자원을 집중하고 출자 절차를 추진한다.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은 구체화된 상황이다. 총 4조7000억원 예산 중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에 3조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에 8000억원, 해외 우수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추진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CNS,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 출사표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 출시 금융기관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지원

LG CNS가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돕는다.

LG CNS는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KITL)’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틀은 은행, 증권사, 카드사, 결제사 등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실물연계 자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구축할 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사업의 필수 영역인 ▲전자지갑 ▲거래 처리 ▲수수료 대납 ▲거래 내역 수집 내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보완했다.

기존 디지털자산 지갑은 개인키를 보관하는 보안 장비의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확장이 어려웠다. 이에 회사는 서명 시점에만 개인키를 즉석에서 생성해 사용한 뒤 즉시 폐기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추가적인 장비 증설 없이 수천만 명에게 지갑을 발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한 것이다.

거래 처리는 금융기관 시스템에서 요청한 거래가 블록체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상태를 추적해 결과를 전달한다.

수수료 대납은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인 ‘가스비’를 은행, 카드사 등 서비스 제공사가 약속한 구조에 맞게 나눠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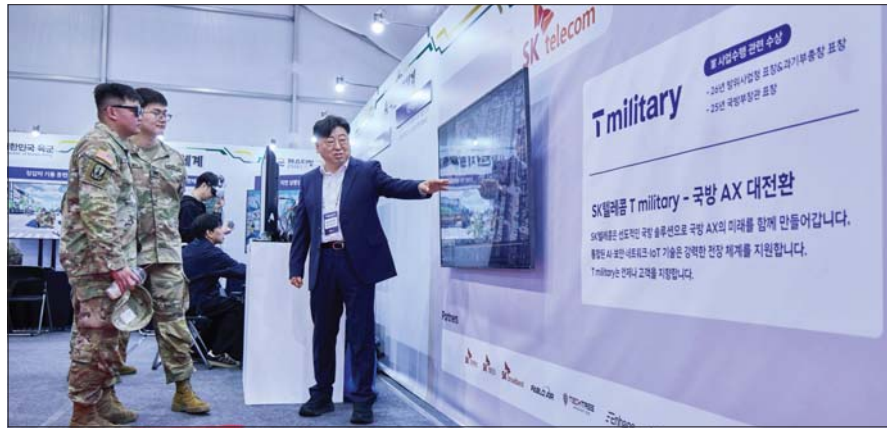
거래 내역 수집은 전 세계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 기록 가운데 해당 금융기관

과 관련된 내역만 가져온다. 예를 들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총량과 달러·원화 예치금을 대조하는데 활용하고, 스테이블 유통사는 정산과 회계,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식이다.

회사는 이번 솔루션의 강점으로 확장성을 꼽았다.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인프라 재구축 비용 없이도 유연하게 디지털 자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솔루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중복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LG CNS는 이번 솔루션 기능 강화를 위해 서클, 시큐리티즈, 캔톤 파운데이션, 체이널리시스, 체인링크 등 글로벌 기업 5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조민선 기자



SK텔레콤 전시 부스를 찾은 군 관계자들이 국방 AX 브랜드 ‘T 밀리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SK텔레콤

SKT, 미래 전장 통신·AI 기술 공개

‘AI 참모’로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

SK텔레콤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앞장선다.

SK텔레콤은 육군본부 주관하는 ‘2026 지상군페스티벌’에서 국방 AX 기술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일반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표 군 문화축제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렸다.

SK텔레콤은 ‘T 밀리터리’ 브랜드를 앞세

워 정책홍보관으로 참여해 국방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시연했다.

핵심 기술은 ‘AI 참모’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전장 상황을 구현하는 지원 체계다. 이를 통해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적시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장용 통신·보안 기술로 주목받는 저궤도 위성 기반의 통신 체계와 보안 기술도 선보였다.

/조민선 기자

펄어비스, ‘붉은사막’ 흥행에 영업이익 2797억

과천 지정타 실적 선두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사막’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요 입주 기업 가운데 두드러진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 5211억원, 영업이익 2797억원을 기록했다.

과천 지정타 주요 입주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펄어비스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JW중외제약 657억원, MK전자 415억원, 셀트리온제약 322억원, 안국약품 246억원, 가비아 232억원, 광동제약 1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의 실적 성장은 지난 3월 출시한 ‘붉은사막’이 이끌었다. 붉은사막은 상반기에만 402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기존 대표 지식재산권(IP) ‘검은사막’ 매

출도 1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펄어비스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영업손실에서도 벗어났다. 펄어비스는 2023년 164억원, 2024년 123억원, 2025년 1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2121억원, 2분기 67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2797억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 영업이익 규모도 넘어섰다.

과천 지정타는 IT·게임·바이오·제약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모이는 기업 클러스터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800곳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펄어비스를 비롯해 MK전자, 메가존클라우드, 가비아, JW중외제약, 광동제약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게임 기업의 추가 입주도 예정돼 있다. 넷마블은 과천 지정타에 연구개발센터와 신사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요금제·인터넷 상품 챗GPT서 한눈에 비교

공식 상품정보와 챗GPT 연동

KT 고객들은 앞으로 챗GPT에서도 요금제 등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KT는 오픈AI의 챗GPT에 KT 상품정보를 연동한 플러그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은 챗GPT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하는 연동 도구다. 챗GPT 채팅 사이드바에 있는 플러그인 메뉴에서 ‘KT 플러그인 설치’를 선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KT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품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챗GPT가 이용자들의 자연어 질문을 바탕으로 조건에 맞는 무선 요금제부터 인터넷·IPTV 등 유선상품까지 KT의 다양한 상품정보를 안내한다.

/조민선 기자

LGU+, 우리은행과 보이스피싱 차단

‘익시오 보이스피싱 금융안심’ 서비스

LG유플러스가 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해 ‘익시오 보이스피싱 금융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사 AI 통화앱 ‘익시오’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감지하면 위험 정보를 연계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은행은 해당 고객에 대한 이상 거래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대응은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이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의 통화 여부나 AI 변조 음성 사용 여부, 악성 앱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위험 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이 확인하기 어려운 통화 단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민선 기자